

## 눈 이야기들 4강 사르트르

### 현상학과 실존주의

#### 이른바 3H

헤겔의 주저 『정신현상학』의 부제는 의식의 경험에 관한 학이다.

의식이 절대지로 발전하는 단계를 상세히 기술했다.

곧 의식, 자기의식, 이성, 정신, 절대지로의 변증법적 **운동**.

의식에 도달하려면 감각적 확신, 지각, 오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단계는 모두 대상에 대한 의식이며, 아직 자기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대상]의식이 어떻게 **자기의식**으로 고양되는가? 헤겔의 답은 인간의 의식은 배후에 자기 자신이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의 속성은 자기의식이라는 얘기다.

타자도 역시 하나의 자기의식이다. 그래서 나와 타자가 만나면 자기의식 간의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정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하나의 자기의식은 자기를 잃고 상대방에 종속된다. 이 경우 하나의 자기의식은 고양되기 이전의 의식으로 추락한다. 그러나 이 순간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의식으로 전락했던 자기는 자기의식을 회복한다. 이 경우 반대로 타자가 종속된다. 이 같은 지배-종속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타자를 자기와 동등한 자기의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의 완전한 존재는 나와 대등한 다른 자기의식에 의해 인정받을 때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동등한 관계에서의 상호인정이 가능한가?

사르트르는 헤겔의 이 낙관적 견해를 비판한다. ‘나=나’라는 확신이 진리가 되려면 타자가 나의 자기의식의 확신을 보증해주어야 한다. 의식들 간의 투쟁은 각자 자신의 확신을 진리로 변형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타자가 매개수단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각자 자기의식을 인정받는 상호인정의 상태가 가능한가?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 상호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투쟁의 관계**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현상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감각에 드러남/나타남이다. 그러나 훗설이 말하는 현상은 눈앞에 드러난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의식에 주어진 현상**이다. 현상학은 그 대상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식에게 주어지는 방식에 주목한다.

대상은 의식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따라서 의식이 대상을 향해 가야 한다. (의식의 **지향성**) 의식은 자기로부터 몸을 빼내어 자기 아닌 것을 향해 간다. 그러나 의식은 대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의식은 나에 대해서도, 사물로부터도 밖에 있다.

의식은 아무 것도 아닌 텅 빈 상태이며, 대상이 주어질 때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의식에는 주어진 본성 따위는 없다.

대상이 없는 막연한 의식은 없다. 대상과 의식은 상관관계에 있다. **노에마와 노에시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로부터 많은 개념을 물려받았다. 하이데거 철학의 주제는 ‘존재 추구’다. 그는 우선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했다. 그런데 존재자는 물질성만이 아니라 추상적 ‘있음’도 포

괄하는 개념이다. '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지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물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인간의 '있음'은 책상의 '있음'과 결코 같지 않다. 이를 하이데거는 '현존재'Dasein로 표현한다. 인간만이 존재 이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결코 다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만이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양식을 '실존'이라고 불렀다.

**불안**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본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이 불안감은 숙명이며, 벗어날 길이 없다. 하이데거는 죽음의 불안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실존**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는 **현존재의 근거가 무無임을 인정하고, 이런 필멸성의 자각을 토대로 자신의 기획을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다.**

실존철학에서 보면 진리는 오직 한 개인의 정신 속에만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과 선택**이다.

###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르트르의 독창성은 무와 자유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존재 속에 무가 들어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사르트르 역시 무가 존재의 반대가 아니며, 무는 존재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다만 하이데거의 **무가 죽음의** 의미를 함축하는데 비해 사르트르에게서 **무는 자유의** 기반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하나의 가능성, 즉 투기 영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성, 곧 패배로 보았다.

사르트르는 현존재를 초월성과 사실성(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규정했다.

**의식이 바로 초월성이다.** 초월성은 의식과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거리를 말한다. 이는 대상이 의식 외부에 있음과 대상으로 향하는 의식의 **운동**을 의미한다.

의식이 대상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하는 행위를 **정립**이라 부른다. 이는 어떤 사물이 존재함을 긍정하거나 규정하는 의식작용이다.

그런데 의식은 외부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의식은 자기의식이 된다.

**외부 대상에 대한 의식이 정립적인데 반하여 자기의식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므로 비정립적이다.**

대상에 대한 정립적 의식에는 필연적으로 비정립적 의식도 함께 들어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켤 때 나의 의식은 담배만을 대상으로 삼을 뿐, 담배를 세고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켜를 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담배를 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내가 켜를 하고 있다는 의식에 대한 무의식적 의식이 비정립적 의식이다.

이처럼 반성하는 의식과 반성된 의식 사이에는 틈이 존재한다.

이 틈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무이다. 이 무[거리두기]로 인해 대자對自구조가 생긴다.

의식은 한 가운데 무를 가지며 부단히 무를 분비하는 존재다.

내가 현재의 존재에서 미래의 존재로 이행하려면 바로 앞선 내 존재를 부정하고 거기서 몸을 빼내 앞으로 가야한다. 이처럼 대자존재의 운동은 매순간 부정 • 단절이다.

과거의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무화작용이라 한다. 무화란 어떤 것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 즉자와 대자

의식 밖에 있으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즉자이다.

반면 그 자체로 있지 못하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의식이며 대자이다.

즉자는 be, 대자는 exist.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만 지향성으로 존재하는 대자는 속이 비었다. 달리 말해 속에 무를 갖는다. 반면 즉자는 존재의 충실함이다. 속이 꽉 찬 덩어리, 이것이 즉자의 이미지다. 대자가 자기와 자기의 관계임에 비해 즉자는 빈틈없는 자기와의 일치다.

즉자와 대자 모두 우연성이다. 곧 잉여적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대자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사물만 즉자는 아니다. 다른 존재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고립된 존재, 변화·생성에서 벗어난 존재는 의식이더라도 즉자존재다. 예컨대 과거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는 즉자다. 되고자 하는 미래의 내 모습도 미리 그려 놓았다는 점에서 즉자이다. 따라서 현재만이 대자이고, 과거와 미래는 인간의 삶이지만 즉자적이다. 현재에 안주하는 삶, 그것은 사물과도 같은 삶이다. 그것은 수동적 존재이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

대자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결여/무를 채우기 위해 세계를 향해 자신을 던진다.

대자가 되고자 하는 전체성은 자기 자신이다.

대자는 현재의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의 자기를 꿈꾼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미래의 이상적 자기는 즉자 존재다.

결여/무는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 구조이며 조건이다. 인간은 끝없이 저편에 있는 존재다.

대자는 곧 무이므로 존재의 충실을 원한다. 곧 무가 메꾸어지기를 원한다. 개 팔자가 상팔자? 이처럼 인간은 사물이 되려는 은밀한 욕망이 있다. 그렇다고 사물적 죽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타나토스가 아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즉자와 대자의 종합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인간의 부단한 존재추구는 결국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헛되고 부질없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증명한다. 자신을 고립시키는 무를 분비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이 자유다.

행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혁명가는 미래의 유토피아가 현재 결여된 것으로 느끼고 현재의 자기 상태,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재의 세계로부터 몸을 빼낸다.

신은 죽었으므로, 인간의 본성 따위는 없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따라서 인간은 어쩔 도리 없이 자유 그 자체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행동에 대한 정당화나 변명을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자유이고 그 책임도 온전히 자기 몫이다. 자유/선택은 무화와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자가 자기 존재와 대상에서 몸을 빼내는 것이 모두 자유/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유로 선고되었다. 단 자유롭지 않을 자유 혹은 죽을 자유는 없다.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자유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의 자유이지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자유는 가볍다. 따라서 오레스트가 저지르는 범죄(행동)는 존재의 가벼움을 채우는 의미를 갖는다. 범죄 그것은 선물이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사실성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의 사실로서 주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태어난 나라, 인종, 계급, 외모 등이 사실성이다.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들어 인간이 무력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사실성에 대해 내가 내리는 해석에 따라 나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과거의 결정론을 버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밝히려는 것이 실존주의다. 예컨대 보들레르의 고립감이나 금치산자로서의 성격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얼마든지 고독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고통 받는 삶을 즐겼다. 본원적 선택.

불안은 자유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다. 하이데거는 무에 의해 사로잡힐 때 불안을 느낀다고 했다. 사르트르는 공포와 불안을 구별하여 공포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은 자신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다. 내가 낭떠러지에 설 때 불안한 이유는 스스로가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 대타존재

그런데 앞서 설명한 두 존재, 즉 대타존재와 즉자존재만으로 자신의 존재론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르트르는 제 3의 존재를 문제 삼는데, 이것이 타자다. 타자는 나의 대타존재를 형성한다. 사르트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치심을 예로 든다. 나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이 경우에도 내가 나에게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결국 나를 대상화한 결과, 그러니까 나를 타자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다.

다른 하나는 나의 행동이 타자의 눈에 띈 경우다. 이 경우라면 나는 더한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수치심은 **타자 앞에서 내가 나에게 대해 갖는 의식**이라는 이중의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대타존재의 문제는 '타자의 존재'와 '나와 타자의 관계'로 구성된다.

타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이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르트르가 드는 예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원 벤치에서의 예이고, 다른 하나는 열쇠구멍을 통해 훑쳐보다 들키는 예이다. 첫 번째 경우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출현으로 인해 나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내가 중심이었던 세계가 와해되지만 내가 인간-객체를 인형-객체로 다시 바라봄으로써 원상태로 복원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는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그 시선의 주체가 새로운 중심이 된 세계에서 속절없이 사물의 위치로 전락한다.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 바라보인 나의 모습은 더 이상 나의 가능성이 아니다. 게다가 나로서는 이 모습을 좀처럼 알 수도 없고, 그저 짐처럼 떠안고 갈 뿐이다.

보는 행위를 통해 타자는 나에게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체험시키고 나를 객체화하는 존재다. 시선은 나에게 대한 타자의 구체적 현전을 증명한다.

사악한 눈

시선은 단순히 시각 작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선은 우선 권력이다. 타자를 포획해서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의 눈.

타자가 나를 바라볼 때 그의 존재론적 지위는 상승하고 나는 반대로 하강한다. 그러나 나는 한 순간도 객체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는 타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주체의 위치에 서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것이 시선 간의 투쟁이다.

타자의 시선에 대한 반응

강박관념, 타자가 없음에도 늘 바라보임을 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타자가 나를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타자를 바라보려는 생각, 이는 신적인 관점을 소유하려는 것. 단편 「에로스트라트」에서 일베르가 7층 테라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면. 이는 푸코의 전망 감시탑과 유사하다.

그러나 타자는 투쟁의 상대 외에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이기도 하다.

인간은 즉자-대자의 상태를 추구하지만 끝내 도달할 수 없다. 타자에 의해 바라보인 나의 모습은 즉자 존재다. 바라보인 나의 모습은 나의 이상적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존재 근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자는 내가 바라던 존재근거를 나에게 제공해준다. 바라보인 나의 모습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타자의 소관이다. 이것이 타자가 나에게 부여하는 나의 외부다.

이 외부가 나의 '본성'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타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을 소유한 자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는 나의 존재를 훔쳐가는 자다. 이 바라보인 나의 모습을 나의 의식의 지향성의 대상으로 확보할 때, 나는 나의 존재 근거를 확보하는 셈이다. 이처럼 시선에 의해 나에게 현전하는 타자는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를 괴롭게 하는 지옥이면서, 나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주는 자이기도 하다.

타자를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존재한다.

동화의 태도. 타자의 자유, 초월성, 시선 등을 인정하면서 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컨대 사랑의 태도. 따라서 사랑에 참여하는 양자는 모두 자유와 초월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유를 알 수 없던 나의 존재에 이유가 부여되고, 나는 존재의 우연성에 벗어난다. 그러나 사랑은 내부에 실패의 싹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을 구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객체 상태로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사랑은 나와 타자 사이 맺는 관계들 중 가장 이상적 관계이다. 왜냐하면 근본적 투쟁 상태에 있던 양자가 서로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하려는 불가능하지만 안타까운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타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마조히즘. 그러나 이는 나의 주체성과 자유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보다 내가 자신을 타자의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하다.

내 편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객체화시키려는 태도. 이는 동화의 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촉발되는 관계다. 사디즘, 무관심, 증오.

사디즘은 폭력을 통해 타자를 객체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사디스트가 얻으려는 것은 타자의 신체를 통제하여 타자의 자유를 움켜쥐고, 타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를 체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실패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그가 고문에 굴복한다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이 결코 나를 절대로 객체화시킬 수 없다는 맹목적 신념이 무관심이다. 일종의 유아론. 무관심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사실 내가 타자에 의해 항상 바라보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해 압도된다. 게다가 타자는 나의 존재근거 확보를 위한 존재이다. 만약 타자 앞에서 이러한 무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잉여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타인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 내가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이 원죄다. 타인과의 관계는 결국 이 원죄의 다양한 변주에 불과하다. 타인과의 관계는 이처럼 실패의 관계다. 서로가 대상화되지 않으려고 단단히 무장한 채 어떠한 휴식도 없이 긴장 속에 살아간다.

#### 대타관계의 변화

『존재와 무』에서 갈등과 투쟁은 인간존재의 본질적 구조였지만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갈등은 우연적 요인에 의거한다. 마르크스 유물론 관점에서 결여는 이제 물질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해소에 대한 견해는 이전 보다 낙관적이다.

#### 산재집단

융화집단 - 집단의 실천은 모든 개인의 자유로운 실천으로 행해진다. 타자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나 자신이 있다. 그러나 극적인 순간이 지나가면 개인들은 각기 자기 이해관계로 돌아선다. 내분의 위협, 단결서약, 우애적 테러